



## Global ETF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26년 5월 12일 | Global Asset Research

# New K-ETF

## 미국 시테크 하이베타

### 신규 상장 ETF(5/12)

#### - KIWOOM 미국 시테크 하이베타

**KIWOOM 미국시테크 하이베타:** 미국의 시테크 기업들 가운데 주가 탄력이 더 높은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High Beta)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패시브 ETF이다. 현재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AI 기술주 중에서도 민감도가 높은 기업들을 선별하여 편입함으로써 추세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형태의 ETF 종목이 되겠다.

유동성 조건(유동시가총액 50억달러<sup>+</sup>, 평균 거래대금 500만달러<sup>+</sup>)을 충족시키는 미국 증시 상장 종목 가운데 제조업, 정보산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광업 및 에너지 자원 개발, 유틸리티, 금융 및 보험 업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을 편입 대상 유니버스로 한다. 이어 'AI and Frontier Tech' 키워드의 테마 연관성 점수가 0.5 이상인 동시에, 기준 지수(Akros US Large Cap 500 Index) 대비 베타(영업일 기준 252일로 약 1년 기간)가 높게 나타나는 상위 30개 기업들을 선별하여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

리밸런싱 시점에 기존 편입 종목의 베타 순위가 36위 이내에 자리하고 있을 경우 편입을 유지하고, 나머지 종목 중에 상위 순위 종목들을 순차적으로 편입하는 버퍼롤이 적용된다. 참고로 현 시점 기준의 키워드 점수 상위 영역에는 양자컴퓨팅, 상업용 우주개발, 생성형 AI, 원자력 종목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산업환경에 따라 확장 및 변화할 수 있다.

정기 리밸런싱은 매년 4회(3월/6월/9월/12월)에 걸쳐 진행한다. 즉, 매 분기마다 새로운 트렌드의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는 형태가 되겠다. 개별 종목들의 편입 비중은 유동시가총액과 베타를 가중 혼합하여 결정되며, 10%의 Cap Rate 기준으로 최대 비중이 제한된다. 0.49%의 총 보수가 적용되는 패시브 ETF이다.

도표 1. KIWOOM 미국 시테크 하이베타 ETF의 종목 개요

| ETF명   | KIWOOM 미국시테크하이베타                              |
|--------|---|
| 상장일    |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
| 기초지수   | Akros U.S. AI & Frontier Tech High Beta Index |
| 복제방법   | 실물(패시브)                                       |
| 1좌당 가격 | 10,000원                                       |
| 총 보수   | 0.49%   |
| 구성종목 수 | 30종목  |
| 비중결정방식 | 유동시가총액 가중 및 베타 가중 혼합                          |
| 정기변경   | 연 4회(매 3, 6, 9, 12월)                          |

자료: KRX, 하나증권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

####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